

아quem주보

주님 세례 축일

Association of Korean Catholic Communities of the Middle East 중동 한인 가톨릭 공동체 연합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의 영이 당신 위로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마태 3,16)



수호성인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 (St. Francis of Assisi)

카 페 <https://cafe.daum.net/akccme>

회 장 우종관 대건 안드레아 (+971 50 940 7275)

편집/사무국장 박정인 미카엘라 (+971 56 701 7702)

발행인/전담사제 김성인 미카엘, OFM (+971 58 568 7985)

사무실 +971 2 446 1929

주 소 St. Joseph's Cathedral, Al Mushrif W24-02

P.O. Box 54, Abu Dhabi, UAE

관할지역 리비아, 모로코, 사우디 아라비아, UAE, 이란,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등 중동 및 북아프리카

[중동 한인 가톨릭 공동체(AKCCME) 한국어 미사 시간]

- UAE 아부다비 성 요셉 성당:
첫째/셋째 토요일 12:00 *
- UAE 두바이 성 프란치스코 성당:
둘째/넷째 주일 14:00 *
- UAE 르와이스/바라카 성 요한세례자 성당:
둘째/다섯째 토요일 17:30
- 쿠웨이트 성가정 성당: 매주 금요일 15:00
- 카타르 목주의 성모 성당: 둘째 금요일 15:00
- 이집트 카이로 성가정 성당: 매주 금요일 11:00

* 미사가 없는 주에는 '공소 예절' 이 진행됩니다.

오늘의 전례: 주님 세례 축일

오늘은 주님 세례 축일입니다. 하느님께서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 성령을 내리시고, 당신의 아들로 선포 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하느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만민의 주님께서 전해 주신 평화의 복음을 전하기로 다짐합니다.

- 제1독서

이사 42,1-4.6-7

- 입당송 마태 3,16-17 참조

- 화답송 시편 29(28),1ㄱ과 2.3ㄱㄷ과 4.3ㄴ과9ㄷ-10(㉔11ㄴ)

◎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 하느님의 아들들아, 주님께 드려라. 그 이름의 영광 주님께 드려라.
거룩한 차림으로 주님께 경배하여라.◎

○ 주님의 소리 물 위에 머무네. 주님이 넓은 물 위에 계시네.
주님의 소리는 힘차고, 주님의 소리는 장엄도 하네.◎

○ 영광의 하느님 천둥 치시네. 그분의 성전에서 모두 외치네. “영광이여!”
주님이 큰 물 위에 앉아 계시네. 주님이 영원한 임금으로 앉으셨네.◎

- 제2독서

사도 10,34-38

- 복음환호송 마르 9,7 참조

◎ 알렐루야.

○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 알렐루야.

- 복음

마태 3,13-17

- 보편 지향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참스승이신 주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를 이끌어 주시어, 세상에 주님의
기쁨과 평화를 드러내고 빛과 소금으로서 모범이 되게 하소서.

2.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화해의 주님, 남과 북으로 나누인 저희 민족을 돌보아 주시어, 변화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새롭게 만나고 대화와 타협의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3.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보호자이신 주님, 사랑과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가정 공동체들에 강복하시어,
기쁨과 즐거움, 아픔과 괴로움을 함께 하며, 주님의 참사랑을 누리게 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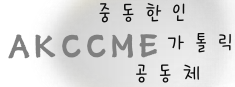
4. 중동 한인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중동 한인 공동체 사도직 단체들을 굿어살피시어, 주님의 진리와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을 향한 신심을 키우며,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도와 주소서.

- 영성체송

요한 1,32.34 참조

[아캠] 2026년 아캠 총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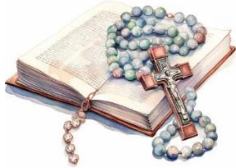
- ▶ 대 상 : 회장단 및 각 공동체 여성 대표
 - ▶ 일 시 : 1월 20일 (화) 20시 (UAE 기준)
 - ▶ 방 법 : '아캠 공용 줌' 으로 접속(회의 번호: 895 0419 9583, 비밀번호: 1004)
 - ▶ 안 건 : 신임 위원 소개, 회칙 리뷰, 연간 계획, 재정 보고, 신임 회장 선출 등
- ※ 대표 유고시, 반드시 대리자를 지정하여 참석해 주십시오.

'아캠 회칙' 개정 요청 접수

아캠 총회를 앞두고 '중동 한인 가톨릭 공동체 회칙'에 대한 개정 요청이 있으신 분은 1월 16일까지 사무국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현행 회칙은 아캠 카페(<https://cafe.dau.net/akccm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캠] '이란' 공동체를 위한 기도



이란 공동체가 정부의 규제로 인해 종교 집회가 금지되어 근래에는 미사 참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란 국민들과 이란 공동체를 기억하며 사랑과 평화의 주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도록,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작은형제회] 관구회의

1월 19일(월) ~ 23일(금)의 5일간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한국관구에서는 관구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관구회의는 관구의 최고 의결 기관으로서 관구와 관구 전체 구성원들의 삶의 방향을 정립합니다. 6년에 한 번씩 선거를 통하여 관구봉사자 및 부관구봉사자를 선출하며, 앞으로의 6년을 계획하는 중요한 회의인만큼, 기도 중에 이를 기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교종 레오 14세] 1월 기도 지향

1월: 하느님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

하느님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가 우리 삶의 양식이 되고 우리 공동체에 희망의 원천이 되어, 더욱 형제애 넘치고 사명을 수행하는 교회를 이루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유아 세례, 왜 중요할까?



유아세례를 받는 유아 또는 아기는 ‘아직 철이 들지 않아 스스로의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는 나이의 아이’를 말한다(교황청 경신성사부 「유아 세례 예식 지침」 1항). 주교 회의에 따르면 2023년 0~4세 신자는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4만9949명보다 50.2% 감소했다. 저출생의 결과가 크지만 ‘아이에게 종교의 자유를 주고 싶다’ 등의 이유로 부모가 유아세례를 미루는 경우도 적지 않다. 유아 세례는 왜 받아야 하며, 하느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유아들의 세례는 어떻게 이뤄지는 것일까?

아기들도 원죄를 갖기 때문에 유아세례는 중요하다. 시편 51장 7절은 “정녕 저는 죄 중에 태어났고 허물 중에 제 어머니가 저를 배었습니다”라며 잉태된 순간부터 비롯되는 원죄를 한탄하는 내용이 나온다. 교회는 교회법 제867조 1항과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47조 등을 통해 부모에게 아기의 출생 후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세례 받게 하며 생후 100일을 넘기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요한 3,5)고 하셨다. 여기에는 어린이들도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이 교회의 해석이다.

이때 세례는 유아를 대신해 부모 등 교회의 신앙을 통해 이루어진다. 「유아 세례 예식 지침」 1항은 “유아들은 부모와 대부 대모와 참석한 신자들이 고백하는 교회의 신앙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다”라고 명시돼 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신앙을 바탕으로 치유의 은혜를 베푸는 사례가 많이 나온다. 예수님께서서는 중풍 병자를 평상에 누워 데려온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자에게 용서받았음을 선포하시며(마태 9,2 참조), 백인대장의 믿음에 근거해 그의 병든 종도 고치신다.(마태 8,5-13 참조) 탈출기에도 자손들에게까지 파스카 예식을 물려주면 하느님께서 만아들의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약속이 나온다.(탈출 12,24-28 참조)

믿음 깊은 인물을 통해 집안 전체에 세례를 주는 것은 성경에도 나오는 이야기이다. 바오로는 그의 말을 귀담아 들던 리디아의 온 집안 식구에게 세례를 주고(사도 16,

15 참조), 베드로는 고르넬리오의 집안에 구원의 말을 전한다.(사도 11,14 참조) 또한 바오로는 감옥에 갇혔을 때 간수와 온 가족에게 세례를 베풀고(사도 16,33 참조), 스테파나스 집안 사람들에게 세례를 준다.(1고린 1,16 참조). 이 기록 가운데 유아와 어린이는 세례에서 제외됐다는 내용은 없다.

때문에 부모는 유아세례 때 아기의 신앙 교육을 의무적으로 약속한다. 「유아 세례 예식」 중 부모는 아기를 신앙의 정신으로 길러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교육할 의무를 알고 있다고 답한다. 「유아 세례 예식 지침」 3항과 5항에도 세례성사를 실제로 완성시키려면 유아들이 나중에 철이 들었을 때 세례 때의 신앙 교육을 받아야 하며, 부모도 하느님을 알도록 교육하고, 견진성사와 성체성사를 받도록 준비시킬 의무가 있다고 말한다.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사랑하셨다.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어린이들을 막자 꾸짖으시며,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냥 놓아두어라. **사실 하느님의 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루카 18, 16)라고 하셨다. 이러한 어린이들의 세례와 구원은 마땅한 것이다. 신자들은 신앙으로 아이들을 교육함으로써 죄에 물들지 않고 하느님께 받는 이 생명이 날로 더욱 풍요해지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유아 세례 예식」 참조).

“우리는 자녀들이 자라서 신앙을 이해하고 스스로 세례를 청하기를 바라야 할까요? 하지만 이것은 성령에 대한 믿음이 없음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아기에게 세례를 주면 성령이 그 아기 안에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께서는 아기가 훗날 꽃피우게 될 그리스도인의 덕성들을 키우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모두에게 특히 모든 아기들에게 기회를 주어야만 합니다. 이들의 삶 전체를 인도해주실 성령을 맞아들이 이 기회를 말입니다**. 아이들에게 세례 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프란치스코 교황 2018년 4월 11일 수요일방언 중)

<가톨릭 신문 발췌, 편집>



중동 한인 가톨릭 공동체 현존 50주년 준비 기도문

지극히 높으시고 자비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이집트 종살이하던 당신 백성을 부르시어,
낮에는 구름 기둥 속에서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 속에서 그들을 비추어 주셨나이다.(탈출 13,21)

참된 자유를 찾아 광야를 걸었던 2000년 전 당신 백성처럼
이곳 광야에서 평화의 사도인 성 프란치스코와 함께
현존 50주년을 향해 순례하는
중동 한인 가톨릭 공동체를 굽어살피시어,

말씀과 성체 안에서 당신을 만나고,
이웃 안에서 당신을 알아볼 수 있게 하시며,
모든 어려움 중에
당신의 모친 마리아의 보호를 찾게 하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부르심으로 시작된 이 여정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서른 배, 예순 배, 백 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마침내 당신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마주 뵈옵는 영광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아라비아의 성모 마리아여,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새해를 맞이하며 바치는 기도



- 시작이요 마침이신 주 예수님,
지난 한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나이다.
- 저희가 지은 죄를 모두 용서하시고,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주시어
새해에는 나쁜습관을 버리고
맡은 책임을 다하여
가정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 또한 저희 생각과 말과 행위를 주님께 바치오니
하느님의 영광과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도록 도와주소서.
- ◎ 아멘.



그리스도교 일치 를 위한 기도

-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께서서는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아버지께서 기도하신 대로
주님과 아버지께서 하나이시듯
주님을 믿는 모든 이가
하나 되기를 바라셨나이다.
- 저희는 같은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같은 주님을 모시면서도 서로 갈라져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나이다.
- 이제 저희는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가 되고자 하오니
- 저희를 도와주시어 미움과 불신을 버리고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 ◎ 아멘.





언제나 새로운 길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건너서 마을로...’

여느 날과 다름없이 출근하는 아침에 하늘을 보며 윤동주 시인의 시 <새로운 길>을 되씹습니다. 오늘 하늘은 연한 하늘색이고 제가 걷는 길에는 내와 숲이 없습니다. 다만 가파른 고갯길과 지하철역을 지납니다. 광화문 사거리를 건너서 지하철로, 동대문을 지나서 학교로. 시 구절을 살짝 바꾸어 봅니다.

매일 지나는 길을 지겹다고 생각하지 않고 새로움을 불어넣는 힘, 시의 마음이 영성의 지혜를 담고 있다 싶어 오래전 시인에게 새삼 고맙습니다. 영성이란 무엇일까, 매일 하느님을 생각하고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매일 새로움을 찾아 기쁘게 힘을 얻고자 하는 시인의 시가 영성에 닿아 있다 싶어요. 그리고 보니 가파른 길을 안전하게 운전해 주시는 마을버스 기사님도 고맙고, 복잡한 지하철 1호선의 사람들도 정답게 느껴집니다. 바쁘게 내리며 제 어깨를 치고 나간 키 큰 남자가 밉지 않게 느껴지는 것도 시의 언어가 전해주는 영성의 힘인 것 같습니다.

저는 매일 말을 생각합니다. 문학 연구자로서 시의 말을 고민하고, 번역가로서는 영어에서 한국어로, 한국어에서 영어로 적절히 잘 옮길 단어들을 매만지다 보면, 늘 말에 둘러싸여 있는데, 그러니만큼 말의 힘을 조금 더 예민하게 감지하게 됩니다. 이 강박한 세상에서 말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 이왕이면 세상의 소금 같은 귀한 말을 더 널리 퍼뜨리기를 바라며 매일 말을 고르고 말 안에서 울고 웃습니다.

좋은 말이 나태한 마음속에서 오염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누가 말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좋은 말이 나쁜 말로 바뀌기도 하고, 말하는 사람이 말의 주인이 아니라 말의 노예가 되기도 합니다. 힘들고 지치면 하늘을 올려다보고 겨울나무를 무연히 바라보기도 하지만, 숨구멍이 될 말을 찾고 희망이 되는 말쑈에 기대어 볼 때 든든해집니다. 그러면 견딜 수 없는 순간이 견딜 만하게 바뀌기도 해서, 좋은 말은 그대로 숨구멍이 됩니다.

이 지면에서 여러분과 사람을 살리는 말들을 나누고자 생각하니, 새롭게 시작된 2026년이 두근두근 더 기대됩니다. ‘... 어제와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은 새로운 길 ...’ 시인은 그 길에서 민들레와 까치를 만났는데, 우리는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저는 오늘 아침 노란 외투를 입고 아장아장 첫걸음 걷는 아가를 만났습니다. 동글동글한 목소리의 아가는 아빠가 잡아주려는 손을 마다하고 혼자 걷겠다고 떼를 씁니다. 나 혼자 할래, 자아가 생긴 아가는 앞으로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손을 잡을까요? 그 아가가 자라날 세상엔 어떤 꽃이 피어날까요?

하느님 만드신 이 세상이 더 고운 사람들 속에 이어지길 기도하며 지하철에서 내립니다.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어 주겠다. 너희 몸에서 돌로 된 마음을 치우고, 살로 된 마음을 넣어 주겠다.”(예제 36,26) 싸한 겨울 공기를 들이쉬며 나를 살리는 말 한마디로 부드럽게 새 마음을 채우니 오래된 낡은 길도 새롭게 보입니다.

글: 정은귀 스테파니아(영미문학문화학과 교수)

<가톨릭 신문 발췌, 편집>



사.진.목.상.



Ethiopia, 2008 (사진, 글 by 박노해 가스파르 시인)

절벽 위의 나무 하나

해발 4천 미터 시미엔 산맥 절벽에
최후의 생존자처럼 서 있는 나무 한 그루.

이토록 작고 여린 존재가

이토록 광활한 산맥을 품고 서 있다.

어떻게 이런 시대에 굳고 선한 마음 하나로

그 많은 상처를 품고서도 그대가 살아있는지.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푸른빛으로 서 있는 사람이 있다.

아캠 기금 납부 및 후원 안내

아캠 기금은 아캠 규정 '제15조 거룩한 직무를 위한 비용'에 따라 전담 사제의 성무활동비, 사무국 운영 및 한인 공동체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되며, 중동지역 내 한인 공동체들의 '자발적 납부와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 인터넷 बैं킹 접수

Account Holder Name: JEONGIN PARK
Bank : Emirates NBD / Account Number: 0999501772101
IBAN: AE52 0260 0009 9950 1772 101
(송금시 reference에 이름 기재 부탁드립니다.)



 ARAKO 두바이 한인 부동산 Sale / Rent/ Off Plan 상담  오픈챗  최은정 셀레나 (055. 360. 0733)	SUZE 수제과일청 각종소스류 • 100% Handmade • 100% Fresh Fruits • 100% Organic Sugar 홈카페 / 내,외국인 선물 / 단체주문 박혜정 안젤라 (058. 580. 2814) /  : angela7204	GULF KOREAN TIMES 걸프 코리아 타임즈 • 중동 대표 한인 교민 신문 • 소셜 미디어를 통한 비즈니스 홍보 & 마케팅 기회 제공 • 외국 커뮤니티와의 협력, 유대 기회 정미숙 라파엘라 (광고 문의) (+971) 50 461 3991 /  : @gktmedia
---	--	--